국외출장 보고서

(2019 단기프로젝트 해외연수 - 중앙아시아 문화예술의 이해)

1. 출장 개요

○ 출장 목적

- 실크로드의 중심국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와 유목민의 삶속에서 꽃피운 문화예술의 이해
-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연해주를 떠나 강제 이주했던 한인의 치열한 삶과 세대를 이어 온 민족예술의 현장을 둘러 봄

○ 출장 기간 : 2019. 9.24(화) ~ 10.3(목) / 8박 10일

○ 출장 장소 :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 출장 인원 : 3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담당업무
출장자	극장운영부	부장	정	여	주요 국가별 방문기관 사전협의 등
	기획조정부	과장	조	남	현장기록 및 자료 정리 등
	정책혁신부	대리	이	남	보고서 작성, 총무, 예산집행 등

2. 연수 일정

구분	일자	출발 및 도착지	주요 일정	비 고
1일	9.24(화)	인천 →알마티	○ 인천 도착 (16:00) ○ 인천 출발 (18:20) ○ 알마티 도착(21:55)	OZ577 (6시간 45분 소요)
2일	9.25(수)	카자흐스탄 알마티	○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 탐방 ○ 알마티 젠코프 대성당, 콕토베 공원, 판필로프 공원 탐방 ○ 고려극장 방문(구 극장, 신 극장) 및 극장투어 ○ 고려극장 사료 아카이빙 현황조사	-
3일	9.26(목)		○ 메데우 빙상 경기장 및 침불락(텐산산맥) 탐방	-
4일	9.27(금)		○ 알마티 출발(12:20)	KC127 (1시간 30분 소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타슈켄트 도착(12:50) ○ 하스트 이맘사원, 무보락 박물관, 바라크한 메드레세 등 타슈켄트 문화유산 탐방 ○ 아무르티무르광장, 독립기념광장, 브로드웨이 등 탐방	-
5일	9.28(토)		○ 타슈켄트 출발(07:30)	아프락시압 열차 (2시간 10분 소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 사마르칸트 도착(09:38) ○ 아프락시압박물관(고구려사신 벽화), 다니엘영묘, 레기스탄광장, 울르그벡 천문대 등 사마르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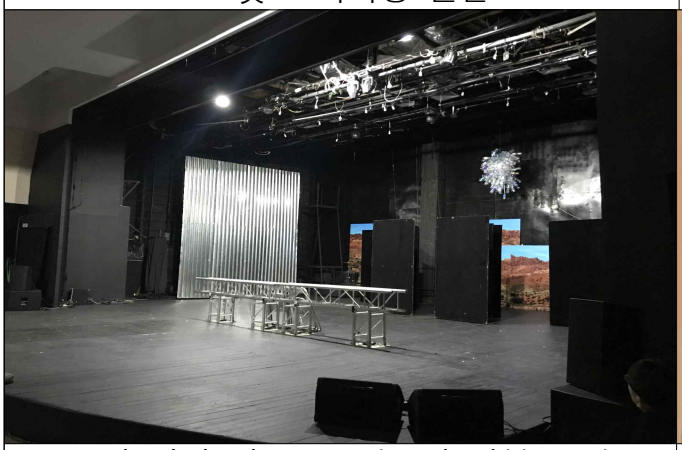
구분	일자	출발 및 도착지	주요 일정	비 고
			문화유산 탐방	
6일	9.29(일)		○ 사마르칸트 출발(09:43)	아프락시압 열차 (2시간 소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 부하라 도착(11:47) ○ 라비하우스, 칼란미나레트, 칼란모스크 등 부하라 문화유산 탐방 ○ 나들지반베기메드레세(우즈벡 전통음악, 연주) 관람	-
7일	9.30(월)		○ 부하라 출발(08:00)	전용차량 (6시간 소요)
		우즈베키스탄 히바	○ 히바 도착(14:00)	
8일	10.1(화)		○ 아타다르바자문, 칼타미노르미 나레트 등 히바 문화유산 탐방 ○ 누룰라비 국립 미술관 탐방	-
9일	10.2(수)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 우르겐치 출발(09:35)	HY54 (1시간 20분 소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타슈켄트 도착(10:55) ○ 한국문화예술의 집 방문 ○ 나보이 극장, 국립인형극장, 모던아트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 탐방 ○ 타슈켄트 출발(22:20)	OZ574 (6시간 소요)
10일	10.3(목)	인천	○ 인천 도착(08:50) 후 해산	-

3. 연수 내용

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방문 및 관계자 미팅

○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극장 현황

- 193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창설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은 중앙아시아 한인 강제이주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이동되었음
- 소련 붕괴 이후 고려극장은 한국의 공연단체, 극장들과 적극적인 교류 및 공연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 중 고려극장을 방문하여 연극을 관람한 후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국회의 예산편성을 독려한 바 있음
-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하여 명맥을 이어 왔으며, 2018년 8월, 알마티 외곽에서 시내 한 복판의 극장으로 이전하였음
- 현재는 카자흐스탄 체육문화부 국립아카데미 고려극장으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극장을 운영하고 있음

<table>
<tr><td></td><td></td></tr>
<tr><td>고려인 강제이주 최초 정착지였던 우쉬토베의 옛 고려극장 건물</td><td>극장 이전 전 고려극장 외관</td></tr>
<tr><td></td><td></td></tr>
<tr><td>극장 이전 전 구 고려극장 내부 무대
현재는 국립 도이치 극장으로 전환</td><td>2018년 이전 전 고려극장 측면</td></tr>
<tr><td></td><td>
</td></tr>
<tr><td>2018년 이전 후 고려극장 건물</td><td>극장 이전 후 고려극장 현판</td></tr>
</table>

○ 고려극장 관계자 미팅 결과

- 연수단 방문일 전일,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에서 대통령 주관 summit 행사가 있어 대부분의 단원이 행사에 동원되었다고 함
- 고려극장은 국립 단체의 지위를 가지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고려극장은 소련붕괴 이후 변화하는 카자흐스탄 사회 환경 속에서 극장의 정체성과 생존력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노력 또한 경주하였음.




고려극장 관계자 미팅 사진

○ 고려극장 아카이빙 현황 조사

- 고려극장 한편에 극장 창설 이후의 역사를 망라한 연표, 사진, 주요 보도 자료 등의 기록이 아카이빙 되어 있음.
- 올해 4월 중앙아시아 순방 중 고려극장을 방문하였던 사진기록과 같이 비교적 최근의 일도 본 구조물에 포함되어 있음



고려극장 연혁 및 관련 자료 아카이빙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고려극장 방문 사진

- 또한 고려극장의 역사와 현황을 담은 책을 발간하였는데, 고려극장의 창립 이후 역사와 역대 배우 소개, 극장 활동 내역에 대해 약 300페이지에 걸쳐 기록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는 고려인 문화예술 활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술기록원에 기탁할 예정에 있음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고려극장 극장장 사진



고려극장 사 책자

나. 우즈베키스탄 문화예술 현황 조사 및 한국문화예술의 집 방문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문화예술 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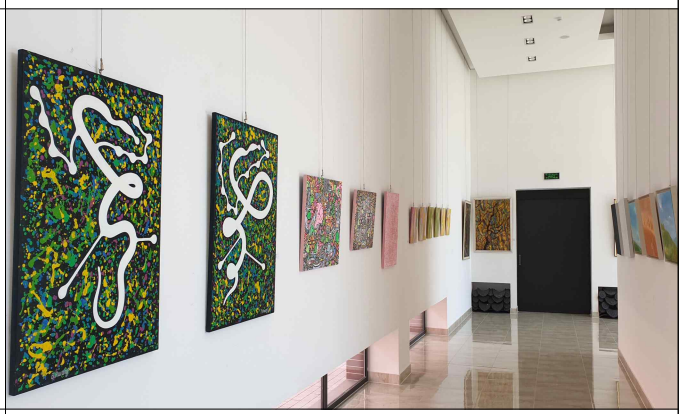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는 소련시절에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에 이은 제4의 도시였으므로 러시아 풍의 국립 극장들이 많으며, 발레, 오페라, 연극, 인형극 등 다양한 공연예술을 상시 향유할 수 있음
-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인터뷰 결과 오페라, 발레 등의 공연예술은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함

<table>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알리샤 나보이 국립 오페라 극장</td></tr>
<tr><td></td><td></td></tr>
<tr><td>리모델링 중인 중앙 인형극 극장</td><td>전시 준비 중인 Central Exivition Hall</td></tr>
</table>

○ 한국문화예술의집 방문 결과

- 한국문화예술의집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문화적 구심점,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문화 홍보, 한-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행사 등 양국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 위해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지난 2016년 5월 착공하여 2018년 준공되었으며,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행사에 참여하신 바 있음
- 한국문화예술의집은 3만 평방미터 부지에 건립된 약 6천 평방미터 규모의 복합 문화시설로 480석 규모의 공연장은 규모만으로는 기존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연장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시설에 비해 콘텐츠는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연수단 방문 시점에는 한국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고려인 시각예술인 들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방문객이 없어 전시장을 닫아 놓고 있었음

-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영화제작 워크숍 프로젝트인 '청년 고려인 영화아카데미 in 우즈베키스탄'이 한국문화예술의집에서 진행되는 등 한국과의 교류는 가능하나 자체 콘텐츠는 부족하며,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 콘텐츠 발굴이 필요
- 고려인들이 강제이주를 당했을 때 계층에 따라 분리하여 이주되었는데 예술가, 언론인 등 엘리트 계층은 주로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이주, 농사일 하던 분들이 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역사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처럼 활발히 예술 활동을 하지는 못함

<table>
<tr><td></td><td></td></tr>
<tr><td>한국문화예술의집 공연장</td><td>한국문화예술의집 전경</td></tr>
<tr><td>
</td><td></td></tr>
<tr><td>한국문화예술의집 한국주간 홍보 포스터</td><td>한국주간 연계 고려인 현대미술 전시</td></tr>
</table>

다.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민족적·역사적 특성

<중앙아시아 이주 이후 고려인들의 삶>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의 삶을 집약적으로 상징하는 두 인물로 카자흐스탄의 '홍범도'와 우즈베키스탄의 '김병화'를 들 수 있음

○ 연해주에서 독립군 활동을 했던 홍범도는 이후 스탈린의 고려인 강제이주 정책에 따라 당시 소련 영토였던 카자흐스탄 땅으로 이주되었고 고려극장 수위장으로 일하며 생애를 마감

○ 고려극장에서 근무하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활약상을 구술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홍범도 일지'가 만들어졌으며 연극 '홍범도'가 제작되었음

○ 현재까지도 '날으는 홍범도 장군'은 고려극장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참고_2019년 대한민국연극제 초청작 '날으는 홍범도 장군' >

○ 고려극장의 '날으는 홍범도 장군' 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이후 고려극장 수위로 일하며 말년을 보낸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임

○ 본 공연은 올해 개최되는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의 해외 초청공연으로 초청받아 오는 6월 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2회 상연하였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인 이주 시 예술인, 언론인 등 엘리트 계층은 주로 카자흐스탄으로, 농민 계층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되었는데 우즈베키스탄 지역의 고려인 지도자 중 '김병화'라는 인물이 있었음

○ 우즈베키스탄의 아무 것도 없는 땅에 내던져진 고려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쌀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고려인 특유의 근성과 선진 농법을 통해 김병화의 콜호즈(집단농장)은 소련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생산량을 올려 소련 식량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음

○ 그러다 소련 정부의 정책에 따라 갑자기 재배 품종을 목화로 바꾸게 되었음에도 목표 생산량을 훌쩍 초과하는 생산량을 올렸으며 김병화는 소련의 영웅 칭호 중 두 번째로 급이 높은 사회주의 노력영웅 훈장을 두 번 받게 됨

○ 현재 김병화는 우즈벡 내 고려인들의 영웅이 되어 타슈켄트 인근에는 김병화를 기념하는 김병화 박물관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의집 내부에도 김병화의 동상이 있음



<소련 붕괴 이후 고려인들의 삶>

○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역사적으로 소련 형성 이전에도 러시아 제국의 영역이었으며 러시아 혁명 이후부터 소련 붕괴 전까지는 공산주의를 겪었으므로 민족주의 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소련 체제에서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만 사용하며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독립 이후에도 우즈벡어 등 현지어를 배우려 하지 않음

○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독립 이후 신생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문서에 러시아어를 쓰지 않고 공무원은 우즈베키스탄어로만 업무를 보게 하는 등 민족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우즈벡어를 모르는 고려인들은 소외받고 있는 상황

○ 반면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민족 간 화합 정책을 잘 펼쳐 인종차별이 없는 편이고 카자흐스탄의 여러 소수민족 중 고려인은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함

○ 그러한 배경에 친정부 활동에 애쓰는 고려극장의 정치적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인데, 고려극장 극장장실에는 카자흐스탄 전 대통령인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소련 붕괴 이후인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집권) 옆 자리에 앉아있는 극장장의 사진이 걸려 있으며 고려인이 그러한 위치까지 올랐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

라.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주요 도시의 문화유산 및 관광산업 특성

○ 우즈베키스탄에는 실크로드를 따라 발전했던 주요 도시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가 위치하고 있어 중앙아시아 일대 가장 많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세 도시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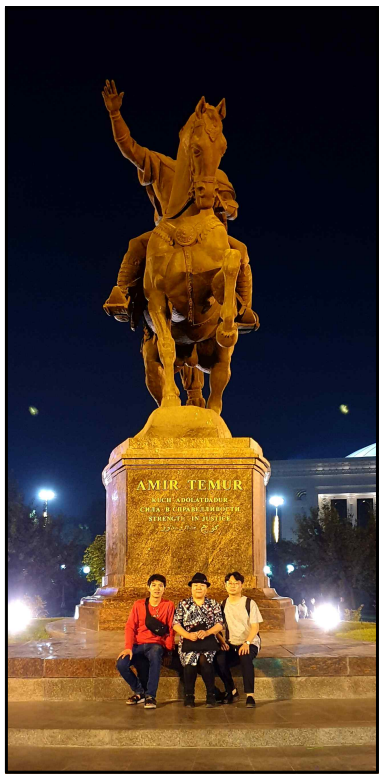
- 다만 보유하고 있는 관광 자원에 비해 교통·숙박·편의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편

○ 또한 과거에 이슬람 교육기관이었던 마드라사(madrasa)는 대부분 현재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 또는 기념품 숍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념품은 주로 현지 주민이 직접 제작한 타일, 그릇, 양탄자 등 수공예품으로 구성



○ **(도시별 특성 -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는 고대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발전했던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과 달리 19세기에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이후 중앙아시아 지배의 전초기지로 성장한 도시임

- 소련 시절에는 더욱 도시가 성장하여 모스크바, 레닌그라드(現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現 우크라이나 수도)에 이어 소련 제4의 도시가 되었으며 오페라, 연극, 인형극 등 러시아식 국립극장이 다수 존재
- 우즈벡인들은 14세기에 중앙아시아를 지배했던 티무르 제국을 정복하여 멸망시켰으나 이후 티무르 제국의 문화적 성과를 흡수하였고 피정복자였던 티무르 제국의 초대 황제 아무르 티무르를 국부로써 존경하고 있음
- 아무르 티무르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광화문 광장과 같이 시내 중심가에 아무르 티무르 공원을 조성해놓았고 우측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티무르의 동상은 이순신 동상과 같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기능



시내 아무르 티무르 동상

○ **(도시별 특성 - 사마르칸트)** 역사 이래 실크로드의 주요 도시였으며 징키스 칸에 의해 멸망하였으나, 14세기 티무르 제국이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은 이후 다시 번창한 도시로 대규모 마드라사(이슬람교 교육기관)가 3곳 세워져 티무르 제국의 중심지였던 레기스탄 광장, 티무르 가의 묘지인 구르 에미르, 샤히진다 영묘 등 티무르 제국의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



레기스탄 광장 전경

- 또한 아프라시압 박물관에는 비교적 최근인 1965년에 발견되어 발굴된 징기스 칸에게 도시가 파괴되기 이전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중 7세기 유물인 사신도의 우측 두 명이 고구려 사신임이 밝혀짐(하단 그림 1)
- 고구려 사신도 원본이 소장되어 있는 공간은 한국측 원조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해당 공간 및 안내도에 KOREA-ODA 표시가 되어 있음 (하단 그림 2)
- 또한 2013년에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박물관 앞뜰에 한-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우호협력 기념비가 세워져 있음 (하단 그림 3)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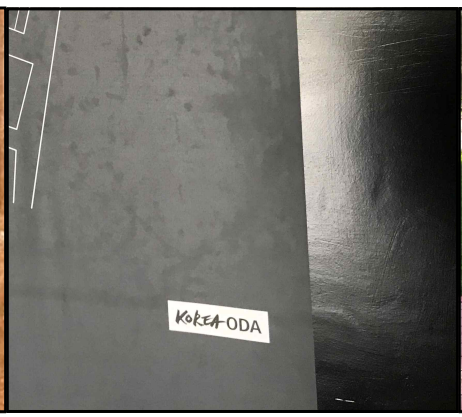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 **(도시별 특성 - 부하라, 히바)** 부하라와 히바는 러시아에 의해 멸망하기 전인 20세기 초까지 존재하였던 부하라 칸국, 히바 칸국의 수도로써 구시가지는 고대 문화유산과 현대에 새롭게 세워진 건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음

- 또한 두 도시 모두 성곽 도시인데 도시 성벽 일부만 남아있는 부하라와 달리, 히바의 내성은 대부분 보존이 되어 있으며 성벽 내부를 호텔, 식당, 상점 등으로 꾸며놓았음



히바 구시가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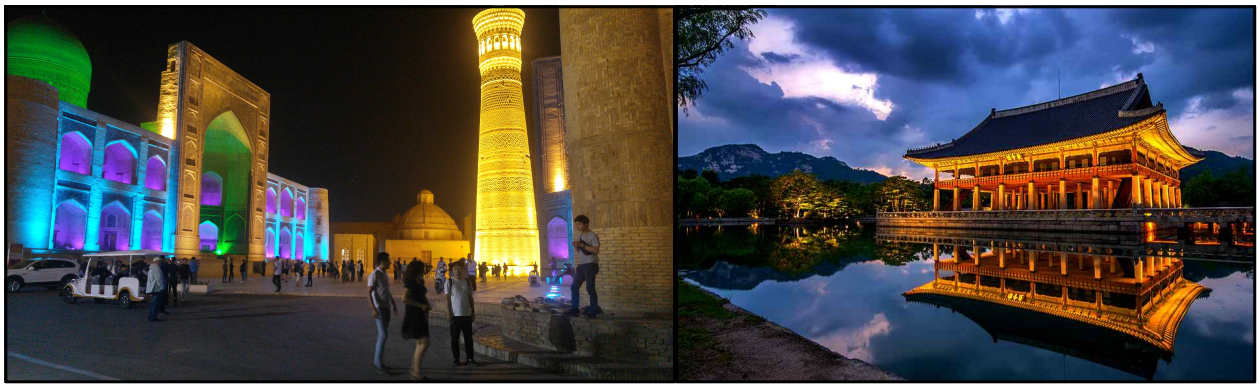
- 알마티→타슈켄트→사마르칸트→부하라→히바로 이어지는 본 연수단의 여정은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경로와 같은데, 우즈벡 측 강제이주의 마지막 도시는 히바 북측, 아랄해 남단의 쿤그라드였다고 함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도 모습.

○ **(우즈베키스탄 관광 산업 고도화 방안)** 주요 관광 명소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경을 관광객들이 야경을 즐길 수 있도록 꾸며 놓았으나 야경으로 유명해진 타 국가 관광 명소와 비교하면 규모, 연출, 전반적인 구성이 미흡

- 중심 랜드마크, 다리, 강변 등에 큰 스케일로 조명을 설치하여 유명 관광지로 거듭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사례, 예매 열풍과 매진 사례를 불러일으켰던 경복궁·창경궁 야간개장 등을 볼 때 우즈베키스탄 관광 산업도 야경 조성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문체부 차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교류가 생긴다면, 기술 이전 등 도움을 줄 수 있음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좌)와 서울 창경궁(우) 야경 연출 비교]



[세계 3대 야경으로 유명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전경]

4. 연수 효과 및 연수결과 활용에 대한 시사점

가. 고려극장 협력 사업 개발 가능성 검토

○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 협력기관 신규 발굴 방안

- **(레지던스 지원 현황)** 2020년 지원신청 안내책자 기준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지정형) 협력 기관은 전체 26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유럽에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시아는 협력 관계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사업 장소의 다각화가 필요

구분	유럽	아시아	북미	중남미	기타	계
문학	8	2	1	1	-	12
시각예술	5	-	-	-	1	6
연극	2	-	-	-	-	2
무용	2	1	-	-	-	3
음악	1	-	-	-	-	1
공연예술일반	1	-	-	-	-	1
문화일반	1	-	-	-	-	1
계	20	3	1	1	1	26

- **(고려극장 특성)** 고려극장은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단체로 국비 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단원들이 월급을 받으므로 공연이 없는 날에도 상시로 극장에 나와 연습을 진행함
  · 또한 극장의 레퍼토리 중 한국어로 진행하는 연극이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일부 고려인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이 비교적 수월함
  · 90년도까지는 소련의 구성원으로 연극 활동을 이어왔으므로 고려극장 내부에 정착된 근대 이후의 러시아식 연극(연기술, 연출법 등)을 경험할 수 있음
- **(레지던스 운영 방안 ① - 배우 파견)** 고려극장 객원 단원으로 배우를 참가시켜 레퍼토리 공연 및 배우 훈련 등을 함께 진행
  · 현재 우리 위원회 지원 사업 중 배우를 지원하는 사업이 없으므로 지원 대상을 다각화 명분도 제시 가능
- **(레지던스 운영 방안 ② - 연출 파견)** 고려극장 외부 연출로 연출가를 참가시켜 레퍼토리 공연 연출 또는 기획공연 제작
  · 고려극장은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종종 외부 연출을 영입하여 공연을 진행하는데 실제 연수단이 고려극장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러시아인 외부 연출이 장면 제작을 진행하던 중이었음

○ 고려극장-아르코·대학로 예술극장 협력 기획공연 제작

-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민족사적 의의가 있는 공동 기획공연 제작
- 지난 6월 제37회 대한민국연극제 초청을 받아 고려극장이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올린 바 있듯이 고려극장은 한국 방문 공연 경험이 많으므로 수월히 협력 사업 진행이 가능함

○ 한-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화예술 현황과 미래 세미나 개최

-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실무자, 역사 전문가, 고려극장 관계자 등을 초빙하여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역사와 문화예술 현황 및 향후 상호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예술가의집에서 개최

나.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화예술의집 협력 사업 가능성 검토

○ **(한국문화예술의집 특성)** 한국문화예술의집은 공연장, 전시장, 세미나실, 식당 등의 부대시설은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나 자체 콘텐츠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 협력 또는 연계는 어려움

-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자체 콘텐츠인 청년 영화아카데미를 우즈베키스탄 한국문화예술의집에서 개최한 사례와 같이 위원회 자체사업 개최 장소로 활용이 가능함

<참고_영화진흥위원회 청년 고려인 영화아카데미 in 우즈베키스탄>	
○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한국문화예술의 집에서 영화제작 워크숍 프로젝트인 '청년 고려인 영화아카데미 in 우즈베키스탄' 을 추진함 ○ 영화제작 실무 및 한국문화 특강 수강 및 워크숍을 통해 4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하여 상영	

5. 집행예산 : 7,938,854원

1) 국외여비 : 7,890,654원

성 명	총계	항공운임(실비)		교통비 (실비)	문화 활동비 (실비)	여행자 보험 (실비)	체제비		
		국외	현지				일 비(정액)	숙박비 (실비)	식비(정액)
정 (제	**2,942,597**	942,000	156,650	72,300	67,246	13,810	292,320 (30$×8일×1,218)	823,375	574,896 (59$×8일×1,218)
조 (제	**2,474,028**	942,000	156,650	72,300	73,738	12,090	253,344 (26$×8일×1,218)	486,450	477,456 (49$×8일×1,218)
이 (제	**2,474,028**	942,000	156,650	72,300	73,738	12,090	253,344 (26$×8일×1,218)	486,450	477,456 (49$×8일×1,218)
계(원)	**7,890,654**	2,826,000	469,950	216,900	214,723	37,990	799,008	1,796,275	1,529,808

* 일비 및 식비 계산은 출발일인 9.23 기준 환율 1,218원으로 적용하며, 타 항목은 항목별 지급일 기준 실비 적용 (붙임 엑셀파일 참고)

** 정 부장 집행 여비와 지원금(2,500,000원)과의 차액(442,597원 초과지출)은 자부담 처리

*** 조 과장, 이 대리 집행 여비와 지원금(2,500,000원)과의 차액(각각 25,972원 미지출)은 반납 처리

2) 국내여비 : 48,200원

○ 이엘림 대리 : 서울-나주 편도 ktx 48,200원

다. 예산과목

○ 기관운영비/운영비/공공요금및제세

○ 기관운영비/여비/국외업무여비

○ 기관운영비/여비/국내여비